

기획특집
778



본격적인 컬러시대에 돌입한 일본 사무기기 시장

일본의 사무기기 시장 동향

2003년 일본 사무기기 생산금액은 3,777억 엔으로서 전년비 88.8%에 그쳤는데, 2002년의 사무기기 생산금액은 5,003억 엔으로 전년비 90.8%였기 때문에 1년 만에 1,000억 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복사기 생산대수는 91만 7,954대(전년비 97.9%)에 그쳤다. 아날로그는 4만 9,493대(동 82.4%), 디지털은 50만 8,936대(동 87.4%)로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대조적으로 컬러기는 35만 9,525대로 급증했다. 한편, 컬러하드카피 시장은 각각 방식의 프린트나 복사기가 활황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급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하드웨어의 급성장에 따라 소모품 시장도 성장하고 컬러 비즈니스는 무엇보다 뜨거운 시장구조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자료 출처 : 월간 Multi Function Printer 2004년 4월호

일본 2003년 사무기기 생산금액, 4000억 엔대 밀돌아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일본 사무기기 생산금액은 3,777억 엔으로서 전년비 88.8%에 그쳐, 4,000억 엔대를 밀돌았다.

2002년의 사무기기 생산금액은 5,003억 엔으로 전년비 90.8%였기 때문에 1년 만에 1,000억 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의 복사기 생산대수는 91만 7,954대(전년비 97.9%)에 그쳤다. 아날로그는 4만 9,493대(동 82.4%), 디지털은 50만 8,936대(동 87.4%)로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에 대조적으로 컬러기는 35만 9,525대로 급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복사기 전체시장에서 미세한 감소였으나, 그것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감소가 주요인이고 컬러기는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컬러복사기의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된 배경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니즈의 변화이다. 사용자 니즈는 높은 코스트라도 고화질이 필요하다는 섬유, 디자인 등의 업무용 컬러 복사기와 어느 정도 화질이 좋지만 낮은 가격이라는 오피스 컬러, 두 가지 분야로 나뉘지고 있다. 당초에는 카피 볼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화질, 고가의 업무용을 즐겼다. 그 뒤 컬러문서의 증가에 따라서 일반 오피스 분야에서도 컬러기기의 구입의욕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박차를 가한 것이 메이커의 컬러 전략이다.

국내에서 복사기 판매대수를 늘린다는 것은 불황과 높은 보급률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매출,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은 MIF(시장에서 가동하고 있는 복사기)의 한대당 카피요금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메이커가 판매가격도 높여 한 장당 카피요금도 높은 컬러복사기로 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03년의 수출입 출하금액 감소경향 둔화

2003년의 사무기기 수출 수입실적이 일본 재무성으로부터 발표되었다.

수출금액은 495억 4,700만 엔(전년비 100.5%)으로 감소경향이 둔화되고 있다. 수입 총금액도 327억 5,400만 엔(전년비 100%)으로 호전됐다.

2003년의 사무기기 생산금액은 3,777억 엔(전년비 88.8%)으로 두 자리 수로 대폭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출은 6월 이후 증가경향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 경향이 2004년에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품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사기

복사기의 수출대수는 17만 1,554대(전년비 119.3%)로 대폭 증가했다. 수출금액도 361억 9,000만 엔(전년비 110.9%)으로 2자리수 증가했다.

복사기의 수입대수는 전년 대비 81.9% 감소했고, 수입금액은 113.3%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한대당 단가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방식별 수출실적을 보면, 디지털 복사기의 수출대수는 전년 대비 93%, 수출금액은 61.7%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기종의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 289.3%로 급증했고, 수출금액도 전년 대비 380.9%로 급증했다.

수출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디지털이 67.5%, 기타가 32.5%이지만 수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디지털이 47.1%, 기타 비율이 52.9%로 역전했다.

2. 마이크로 사진기기

마이크로 사진기기의 수출대수는 전년 대비 77.5%, 수출금액은 97.7%로 나타났다. 수입대수는 117.1%, 수입금액은 126.8%로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로 명암이 나뉘어졌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컬러복사기뿐이다.

이는 수년간 해외생산 강화에 의해 국내로부터 수출 대수 금액도 감소 경향을 보였다. 그것이 2003년에는 보합세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기기 전반적인 수출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복사기뿐이다. 등사기, 금전등록기, 타임레코더, 마이크로 사진기기 등은 전년 실적을 밀돌았다. 유일하

기획특집

계 증가하고 있는 복사기도 아날로그와 디지털복사기는 감소하고 있고 컬러만이 급증하고 있다.

비즈니스기계정보시스템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03년 10가지 품목 수출실적>에서도 전년실적을 웃돌고 있는 것은 전자흑판이었다.

수출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별 구성비는 복사기가 73.0%, 금전등록기가 14.0%, 등사기가 4.3%, 전사기가 2.9%, 타임레코더가 1.8%로 복사기가 압도적으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복사기중에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복사기는 감소하고 컬러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형태로 되어있다.

유감이지만 사무기기의 수출증감은 복사기에 의해 좌우되고 복사기는 컬러에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사기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무기기의 중급 생산이 강화된 결과, 국내로부터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컬러복사기와 디지털복사기의 실례와 같이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그렇지 않은 <저 코스트 상품>은 해외에서 생산한다는 국제 분업을 가속화시키는 메이커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0년의 수출비율은 52%, 2001년의 수출비율은 54%, 2002년의 수출비율은 11.6%로 격감, 앞길에 불안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나 2003년의 수출비율은 13.1%로 다소 변하고 있다.

표 1. 일본의 복사기 생산

(단위: 대/백만 엔)

연도	합 계				정전간접식				디지털기				콜 컬러기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2002년	937,385	81.5	319,118	88.7	60,066	59.7	13,841	51.1	582,586	66.1	166,388	68.7	287,955	226.9	136,774	172.5
2003년	917,954	97.9	281,293	88.1	49,493	82.4	10,963	79.2	508,936	87.4	139,891	84.1	359,525	122	130,439	93.9

표 2. 일본 복사기 기종별 생산

(단위: 대/백만 엔)

연도	저속기				중속기				고속기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2002년	28,298	82.9	7,417	76.6	25,912	56.1	3,777	55.1	5,856	28.9	2,647	25.1
2003년	27,996	98.9	7,905	106.6	19,358	74.7	2,266	60	2,139	36.5	792	29.9

표 3. 일본 복사기 수출

(단위: 대/백만 엔)

연도	합 계				정전간접식				기 타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2002년	143,835	22.7	32,632	11.9	124,559	20.5	27,602	10.2	19,276	75.5	5,030	110.6
2003년	171,554	119.3	36,190	110.9	115,794	93	17,031	61.7	55,760	289.3	19,159	380.9

표 4. 일본 복사기 수입

(단위: 대/백만 엔)

연도	합 계				정전간접식				기 타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대수	전년비	금액	전년비
2002년	231,276	85.2	18,036	70.9	218,921	81.3	17,258	69	12,355	559.6	778	187.2
2003년	262,132	113.3	14,764	81.9	254,602	116.3	13,541	78.5	7,530	60.9	1,223	157.3

본격적인 컬러시대에 돌입하는 컬러하드카피 시장 전망

데이터 서플라이에서는 2004년도 판 전컬러하드카피와 소모품 시장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 테마는 <본격적인 컬러시대에 돌입하는 전컬러하드카피의 시장전망>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프로 시장, 오피스 시장, 소비자 시장으로 나누어진 여러 가지 방식의 컬러하드카피의 하드웨어와 소모품, 비즈니스 장래성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오피스 시장은 드디어 400달러 대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등장하고 단번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는 저가격 경쟁시대로 돌입, 앞으로 잉크젯 프린터와 같이 나가고 있지만 한층 중요하게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삼성, 엡손의 신규참여, HP의 779달러 12ppm 컬러기의 등장 등으로 인해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또, 리코가 히다치 프린팅을 매수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 시장에서는 MFP화가 전 프린트의 절반을 넘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의 활황에 의해 주목되고 있는 L 사이즈 프린터(승화형 잉크)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 컬러 하드카피의 움직임이 큰 변모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배경을 설명하고 모든 방식의 컬러하드카피가 프로시장, 오피스 시장, 소비자시장에서 어떻게 연계되어나갈 것인가, 또 각 메이커나 브랜드가 어떠한 루트나 판매방법으로 경쟁해 나갈 것인가를 소모품 동향을 합쳐서 종합적인 컬러하드카피의 비즈니스 전체 현상과 비즈니스 찬스가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장래성을 분석하였다.

컬러하드카피 시장은 각각 방식의 프린트나 복사기가 활황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급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하드웨어의 급성장에 따라 소모품 시장도 함께 성장하여 전체로서의 컬러 비즈니스는 무엇보다 뜨거운 시장구조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조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컬러레이저(LED프린터 시장)

저가격화 경쟁으로 시장은 급격히 확대하여 하드웨어 소모품 비즈니스와 함께 비즈니스 찬스가 증가하고 있다.

2. 컬러 PPC(MFP)시장

흑백PPC(MFP)의 대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착실하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러닝코스트의 저감이 앞으로의 키워드이다.

3. 잉크젯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전체로 차지하는 잉크MFP역할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때문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잉크, 종이 등의 소모품 비즈니스도 크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4. 열승화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의 급성장 배경에 가정용 열승화 프린트도 확대되고 있고 비즈니스 찬스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5. 기타프린터

●은염프린터

후지사진필름 한 회사의 시장이다. 은염복사기가 있지만 지금은 전용기가 아니라 프린터에 스캐너를 붙여서 대응하고 있다.

업무용의 출력이 중심이지만 병원에서도 화상출력, 대학에서 연구용이나, 기업의 디자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화질이지만 시스템 가격이 높고 시장은 감소경향이다.

기획특집
7.7.8

■ ■ 조사대상

- (1) 프린트 메이커/밴드
- (2) 복사기 메이커/밴드
- (3) 미디어 메이커/밴드
- (4) 부재료 소모품 메이커/밴드
- (5) 기타 관련 메이커

■ ■ 조사방법

- (1) 취재대상 메이커 및 관련 메이커에 대해 직접 방문 면접조사가 원칙
- (2) 공개되어 있는 문헌이나 조사 통계 등을 조사
- (3) 회사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활용

■ ■ 조사형태

동 조사는 멀티그라이언트 방식에 의한 조사

■ ■ 조사기간

2004년 1월 ~ 2004년 3월

■ ■ 조사보고서 간행일

2004년 4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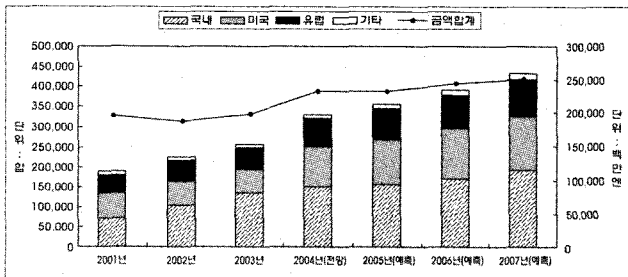
■ ■ 조사보고서

A4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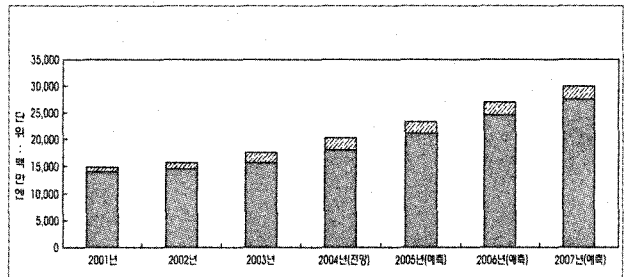
■ ■ 참가비용

한 회사당 참가비용 52만 5,000엔

컬러 - PPC (MFP)시장 (대수/금액)
하드웨어 시장



소모품 시장 (토너 및 감광재) (금액)



‘광학세계’ 정기구독 안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광학세계’ 지를 정기 구독하고자 하는 분은 1년 간 책자 우송료 1만2천원을 지불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기구독 기간중 주소 및 전화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본 협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4-01-0156-856

▶▶예금주 : 한국광학기기협회

• 연락처 : 「광학세계」 편집부

• 주 소 : (137-84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2-5
백산커뮤니티빌딩 4층 한국광학기기협회

• 전 화 : (02)581-2321 • 팩스 : (02)588-7869 • 이메일 : pjy@koia.or.kr